

성남갑 아파트공화국 탈피...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개분야 중심 내달 아파트단지 4곳서 시범실시 "사업 전반에 공공적인 관리 필요"

서울시가 친환경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층수·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는 4월 4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

<도시·건축 혁신안 내용>



/서울시

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과 비용,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안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든 뒤 구청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식인데, 순서를 바꿔 서울시가 사업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은 용적률이나 높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경관·지형, 세대원 구성, 기후 변화 등까지 전방위로 반영한 내용이 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 아파트 디자인은 수익성이 우선돼 단조롭고 획일적인 '성남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정비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인 만큼 사업 전반에 공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을 조정·지원한다.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거칠 경우 현재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퇴짜'를 맞는 사례가 줄어들고, 정비계획 수립에서 위원회 심의 통과까

지 기존 평균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 상하이, 미국 뉴욕·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민간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공공이 경제·환경 측면 검토해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 속 '섬'처럼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를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아파트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아파트라는 거대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단장을 실질적으로 허무는 구상이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와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한다. 최대 5억원의 현상설계 공모비용도 보조한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내달 자치구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서울시, 은평 6.1억·송파 5.7억 매립·소각량 따라 최대 5배 차이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은평구가 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순이었다. 부담금 규모가 작은 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매립·소각량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고 시는 전했다.

자치구별 처분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는 금천구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각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는 부담금을 적게 낸다.

시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름 없는 날도 봄이 되더라..."

봄꽃 심기 작업이 한창인 12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 '꿈세김판'에 봄을 맞아 따뜻한 위로로 전하는 새 문안이 적혀 있다. 봄날 공모전 당선작인 "이름 없는 날도 봄이 되더라 이름 없는 꽃도 향기롭더라"는 하중운 씨와 홍종찬 씨가 각각 제출한 것을 하나로 합친 문안이다.

/연남뉴스

'경기평택사랑상품권' 42억 추가발행

평택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1차 발행분 20억원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2차로 42억원을 추가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발행분은 1만원권 30만장과 5만원권 2만4천장으로, 5만원권은 산후조리비 지급부서, 산모 및 산후조리원의 편의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급용으로 발행됐다.

추가 발행된 상품권은 13일부터 관내 NH농협은행 12개 지점에서 구입가능하고, 15일부터는 지역 농·축협 및 과수농협 등을 포함한 관내 농협 52개 전 지점에

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상시 6%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은 4480여 개소로 가맹점 확인방법은 상품권 뒷면의 QR코드,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가맹점 스티커(가맹점 출입문에 부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4월 청년배당을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가구기업 8곳 459만달러 수출상당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 참가 성과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8개사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 총 289건 459만달러의 수출상당 실적과 69건 314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19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MIFF 2019)'에 경기도관을 마련,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는 아세안 지역 최대 규모의 가구·인테리어 분야 전시회로, 세계 10대 가구 전시회이다. 100,000㎡의 규모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총 14개국 600개사가 참가해 사무용가구, 침대, 주방가구, 생활가구, 건축가구, 조명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품했다.

한국기업은 8개사가 참여해 경기도관을 구성했으며,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했다. 사무용 의자 전문제조기업 '체어마이스



2019 말레이시아국제가구전(MIFF2019)에서 경기도관

/경기도

터(대표 : 전재천)'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무용 가구 유통사인 B사와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동지역의 대형가구 기업 C사와도 15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이탈리아 가구 전문잡지 D사에서는 체어마이스터의 신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해당제품을 D사의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품 사진·영상·가격 등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전천후 인명구조 가능 서울시, 소방헬기 도입

서울시가 '날아다니는 응급실', 소방헬기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야간 등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제조한 AW-189 기종이다. 최대 속력은 시속 283km, 항속거리는 880km다. 최대 4시간 20분 동안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인명구조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은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 365-N2)의 두 배 이상이다.

대형 화재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폐암치료제 내성극복 물질 개발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폐암치료제 내성 극복 신규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바이오센터는 최근 ㈜온코빅스와 공동으로 폐암치료제 내성 극복 신규물질인 'GBSA-43' 개발에 성공, 지난 달 27일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암치료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지원으로 신규 항암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암 사망률 부동의 1위인 폐암은 80%정도가 비소세포(非小細胞)폐암으로 대부분 수술이 불가능한 3기 이후에 발견돼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 특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GBSA-43은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글로벌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62억 달러(한화 약 6조7천억 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7.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